

국어교육학 발전을 위한 연구방법론 탐색을 위하여

-국어교육학 연구 방법의 현황과 문제

윤 희 원 (서울대)

<차 례>

- 0. 시작에 앞서
- 1. 국어교육학 연구의 보편성과 특수성
 - 1.1. 연구의 목표와 대상
 - 1.2. 연구의 내용
 - 1.3. 연구의 방법
- 2. 국어교육학 연구방법론의 반성적 고찰
 - 2.1. 국어교육학 연구방법론의 현황
 - 2.2. 국어교육학 연구방법론의 문제
- 3. 결론에 대신하여
 - : 국어교육학 연구방법론의 탐색과 개발

0. 시작에 앞서

본고는 국어교육학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소개나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기존의 국어교육학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론에 대한 조사나 분류, 혹은 평가를 위한 것도 아니다. 또한, 국어교육학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타 교과와 연구방법론이나 이른바 인접 학문(국어학, 국문학, 교육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의 연구방법론 혹은 다른 나라의 국어교육학 연구방법론을 소개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래의 몇몇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처럼, 연구 방법론에 따른 연구 과제의 정리는 더욱 아니다. 이는 방법에 목적을 종속시킴으로써 논의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어느 연구에서건, 연구방법(론)은, 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선정하거나 개발하는 것이며, 연구방법(론)이 정확하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연구 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면, 그 연구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도무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무엇보다도, 이제 본격적인 학문 분야로서 터를 굳힌 국어교육학에서 연구방법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기초발제자의 역할을 맡은 필자에 대한 학회 측의 요청이기도 했고, 필자가 종래의 연구물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면서 한번쯤 다루어 보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종래의 국어교육학의 본질이나 특성, 심지어는 정체성에 관련된 논의부터 재현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어교육학을 “대한민국의 국어인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 관련된 제 연구”로 넓게 정의하고, 연구방법론을 “특정 연구 과제에 대하여 문제의식으로부터 해결에 이르는 절차의 추상적 총화”로 전제하고자 한다.

1. 국어교육학 연구의 보편성과 특수성

1.1. 연구의 목표와 대상

국어교육학 연구방법론에 관한 논의는 국어교육학 연구의 특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며, 국어교육학 연구에 대한 논의는 국어교육학 연구의 목표와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국어교육학 연구의 목표와 대상을 논하기 위해서는 국어교육의 목표와 대상을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흔히 국어교육은 ‘국어 사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는 목표 진술에서 관점을 달리 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국어 사용 실태의 개선은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의 결과라는 점에 착안할 때, 전자보다는 후자가 목표로서 타당하다 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인정한다면 국어교육의 교육 대상은 국어 사용의 주체이며,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의 주체라야 하는 것인즉, 이는 국어교육의 상황과 장면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으나, 한 마디로 모두 ‘인간’이다.

따라서 국어교육학의 목표와 대상도 ‘인간’을 벗어나거나 넘어서서는 안 된다.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한 연구 과정에서 ‘인간성’을 존중하지 않는 실험을 한다거나, 연구 결과로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 내용이나 교육과정, 교수법이나 제도를 제안하는 등, 국어교육학의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내용이나 연구 절차, 연구 성과가 ‘인간성’을 벗어나거나 넘어설 때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국어교육학 연구라 할 수 없다.

요약컨대 국어교육학은 연구의 목표와 대상 측면에서 인간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여타 학문 분야들과 공유하는 보편성을 가지는 한편 인간의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주된 관심사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다.

1.2. 연구의 내용

국어교육학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어교육학의 내용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인간을 다루는 학문 영역은 무수히 많을 뿐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인간을 다루는 것으로 안 보일 수 있는 공학도 기실은 인간을 ‘위한’ 학문임을 볼 때, 모든 학문은 ‘인간중심적’이 아닐 수 없다.

‘인간’에 관한 여러 부문에서 국어교육학은 기본적으로 언어의 사용, 특히 국어로 지정된 특정 개별 언어의 사용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국어

교육학이 ‘국어학+교육학’이 아니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국어교육학이 국어나 교육과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어교육학은 ‘국어교육+학’으로서 국어와 교육에 주된 관심을 둔다.

국어교육학은 국어를 교육하는 과정과 사용 능력에 관심을 갖되 그 신장을 위해 유용한 제안을 할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으며, 국어를 전제로 한 교육, 교육을 전제로 한 국어에 관한 탐구를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어교육, 나아가 국어교육학에서 다루는 ‘국어’는 우리의 기본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해 수단으로서의 한국어는 물론, 문학과 문화의 표출/향유 도구로서의 한국어 모두를 말한다.

한편 ‘국어’는 ‘국가’를 전제로 한 개념이며, 국가는 ‘제도’로서 성립되는 단위인 만큼 국어교육학은 제도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제도 가운데에서 교육에 관련된 제도, 교육에 관련된 제도 가운데서도 국어 혹은 좀더 넓게 보면 언어의 교육에 관련된 제도를 연구 내용에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의 교육에 관련된 제도라 함은 학교의 국어과교육에 관련된 제도뿐만 아니라, 국어의 사용 및 국어 문화와 관련되는 제도 전반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국어교육학은 국어 나아가 언어를 다루는 여러 학문 영역, 교육을 다루는 여러 학문 영역, 제도를 다루는 여러 학문 영역과 연구 내용면에서 보편성을 공유하나, ‘국어교육’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갖게 된다.

1.3. 연구의 방법

국어교육학은 인간, 국어, 교육, 제도 등을 두루 포함하기 때문에 국어교육학 연구의 방법에는 ‘유일한 정답’이 있을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목표 대상, 내용면에서 여러 학문 분야와 보편성을 공유하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연구 방법을 정하는 것은 여간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보편성의 측면에서 혹자는 유사 영역의 연구방법론을 사용 혹은 적용

하고자 한다. 이른바 ‘일반적’인 기술적 방법이나 실험적 방법을 동원하고, ‘누구나 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계량적으로 처리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그러나, 대상이 인간인 국어교육학에서 실험 조건의 통제나 처치는 많은 제한을 받는다. 또한 개인성과 사회성의 총화인 언어를 다룬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의 문제 역시 연구 성과를 측정하는 데 아직 많은 문제가 있으며, 제도 역시 연구 성과가 실제로 구현되기까지에는 연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절차와 과정이 개재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국어-교육-제도로 이어지는 국어교육학의 특수성은 ‘일반적’인 연구 방법의 적용과 그를 통한 성과에 만족할 수 없으며, 국어교육학의 연구방법(론)은 국어교육학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국어교육학 나아가 각 연구 문제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논의되어야 하며, 탐색·개발되어야 한다.

2. 국어교육학 연구방법론의 반성적 고찰

2.1. 국어교육학 연구방법론의 현황

국어교육학 연구방법론의 현황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나라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렇다할 ‘국어교육학 연구방법(론)’은 제안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어교육학자들은 국어교육학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특수성을 참작하여 기존의 유사·인접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선택적으로 혹은,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학계에서는 역사에 비하여 상당한 양의 연구물이 산출되었고 이들은 나름대로의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제까지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국어교육학 연구에서 어떤 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는가에 관한 논의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은 맥

락에서 볼 때, 국어교육의 연구 문제에 관한 인식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사실상 국어교육학의 역사는 아직 시대구분을 할 정도로 길지 못하며 연구물 역시 분류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정도로 축적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연구 방법에 관한 용어조차도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특히 연구의 방법을 논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방법의 분류 양식을 전제해야 하는데, 이 역시 아직 우리의 현실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아, 다소 비전문적이나 관례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최근 30년 정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경향을 일별하되, 연구물에 대한 평가가 본고의 목적이 아니겠기에 연구물의 제목과 연구자 인적 사항은 구체적으로 적지 아니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듬어진 국어교육에 대한 인식은 종전의 교육과정에 비추어 국어과 교육과정다운 면모를 갖춘 4차 교육과정을 탄생시켰고, 국어교육에 대한 연구의 정체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개념과 용어 정리 내지 제안으로 조금씩 시작되던 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종래의 국어교육 내용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그 나름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어쩌면 탐색기라 할 이 시기의 국어교육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연구 방법은, 각종 조사 연구(survey)였다. 이는 단순화된 계량적(혹은 양적) 연구였는데, 표준어 사용 현황이나 교과서 수록 어휘, 국어교사의 언어 사용 실태 등 국어교육 연구를 시작하면서 당장 파악해야 할 기본 사항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과 필요성이 표면화된 결과였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연구 자료는 주로 설문지를 통해 얻었으며, 이들은 평균과 편차, 상관을 계산하여 결론을 유도했다.

1980년대 말을 향하면서 일부 대학의 석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등장한 것은 국어교육의 이론에 관한 문헌(주로 외국 문헌) 연구로서 개념과 학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나 학설에 따라 우리 국어교육을 해석하거나, 이들을 우리 국어교육(학)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에 관한 비평적 고찰”, “-- 시론”, “--론적 연구” 등의 제목이 붙은

이들 연구물은 국어교육학의 정립을 위한 이론적 바탕을 갖추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을 담고 있다. 여기에도 논의의 시작이나 이론 적용 사례를 보이기 위한 조사와 간단한 통계 처리라 결들여져 있기는 하나 매우 부수적이다.

국어교육학에서 교육 현장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관련 이론이 조금씩 정리되면서 90년대 초에는 “---에 대한 실험 연구”와 같은 연구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엄밀한 의미의 실험 연구라기보다는 연구에서 가설을 증명하거나 연구 성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택한, 인과연구(cause-effect analysis)이며, 주로 교수 학습 또는 평가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자료는 계량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물에서보다는 조금 진전된 통계적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ANOVA test가 등장하고 제한적으로나마 변량 분석이 시도되었다.

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국어교육학계는 드디어 질적 연구 방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그 동안의 연구가 ‘일반화’에 집착한 나머지 ‘구체적인 실상’을 보지 못했다는 데서 느끼기 시작한 문제 의식을 해결하고자 하던 중에, 학제간 연구가 활발해진 당시 학제 분위기 덕분에 문화기술법을 사용한 사회교육학이나 교육인류학의 연구성과물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인간을 다루는 국어교육학 연구에서 계량적 연구가 보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질적 연구 방법으로 극복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질적 연구 방법의 도입은 국어교육학계에 상당한 정도의 혼란을 몰고 왔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례’를 수집-처리하여 ‘객관적’이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을 연구의 지상 목표로 생각해 온 연구 전통에 익숙한 이들에게 ‘하나나 둘, 많아봤자 서넛’에 지나지 않는 대상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연구자가 생각하고 느낀 바’에 따라 정리하여 내린 결론은, 종래의 계량적 연구 성과를 판단하던 방법인 ‘객관성’과 ‘일반화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 자의적 해석에 의한 주관적 결론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한 ‘소수의 사안에 대한

다방면의 천착'은 국어교육학의 연구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거리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 대한 논란과 혼동의 대부분이, 연구자의 연구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질적 연구 방법 사용의 타당성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없이 종래의 계량적 연구의 시각을 통하여 질적 연구와 사례 연구를 혼동하기까지 하는 수준에서 연구자와 연구 성과를 비판함으로써 야기되어왔다는 점이 연구의 방법에 대한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제까지 논의한 연구 방법의 변화는 어떤 시기에 한해서, 혹은 특정 논문의 발표나 특정 연구자의 선언에 따라 명시적으로, 혹은 단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연구의 목표와 대상, 방법에 대한 인식에 따라 흐르듯이 변해 왔다고 하겠는데, 20여 년이란 길지 않은 시간에, 연구 목표도 내용도 방법도 분명하지 않던 수준에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수준으로 변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던 연구자들에게는 급격한 변화라고 느껴질 만도 하다.

한편 이제까지 논의한 바와 같은 고전적인 연구 이외에 국어교육학계에는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전에 없던 규모의 연구 개발 사업들이 시작되었다. 90년대 이전에는 정부 주도의 교과서 개발 사업이 있는 정도였으며 그나마 연구의 개념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교과서 개발이라기보다 교과서 편집 수준의 작업이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정, 교과서 개발에 본격적인 연구가 전체되고 이른바 참고서나 학습 자료 제작에도 '연구'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어느 분야에서나 그랬듯이, 이들 사업성 과제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비교적 짧은 시일 안에 연구개발 사업을 국어교육학계의 중요한 일거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국어교육학 연구 방법의 흐름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연구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연구 방법의 채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대부분 석사 학위 논문들이었다는 점이다. 80년대 중반에 서울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에 박사과정이 설치되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수나마

박사가 배출되었으나 초기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는 이렇다할 새로운 시도나 변화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여기에는 박사학위 논문의 보수성이 그 원인이기 되기도 하겠으나 박사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시작하던 무렵에는 새로운 연구 문제의 발굴이나 연구 방법의 채택을 시도하도록 교육·훈련되지 못했던 역사적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는 80년대 후반에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들은, 문제 의식 즉 연구 문제의 선택이나 연구 방법의 채택 면에서 한층 발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어교육학 연구 방법의 흐름의 방향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흐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외부의, 다시 말해서 외국의 일부 이론이나 연구 동향을 따르는, 일종의 유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국어교육학의 이론적 바탕에 관한 한 특정 국가나 이론이 전세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성주의나 텍스트언어학이 비교적 널리 인용된 듯하나 영어 사용권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저작이 나왔을 뿐이다. 이는 ‘국어’라는 연구 대상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어란 국가와 민족, 역사와 문화가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보편성은 매우 추상적이나 특수성은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국어교육학의 연구 방법 역시 연구 문제의 다양성만큼이나 한 마디로 정리·제안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국어교육학을 종합학문이라고 일컫기까지 하는 것도 국어교육학이 매우 추상적인 이론 연구에서 매우 구체적인 교재·교구 개발까지를 포괄하며, 따라서 소수의 전형적인 연구로 대표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국어교육학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국어교육학은, 문제 의식으로부터 연구 문제의 구성, 해결 절차에 이르기까지 특정 이론이나 경향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특히 문제 의식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국어교육학이 본질적으로 ‘서양 학문적(?)’이기 때문에 논리 구성 방식이 저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국어교육학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 절차로서의 연구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국어교육학의 발전 과정에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2.2. 국어교육학 연구방법론의 문제

그러면, 21세기에 접어들어 오늘의 국어교육학은 주로 무엇을 고민하며 이를 어떤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가?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한 마디로 말해서, 만병통치의 연구 방법은 없다. 또한 연구 방법을 선정하고 적용하는 데에 정답도 있을 수 없다. 연구의 과정을, ‘연구 문제의 인식-자료의 수집과 가공-자료의 분석과 해석’으로 보든, ‘연구 문제 인식-가설 수립-검증’으로 보든 각각의 단계에는 무수히 많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많은 논리적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의 과정에서 동원되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적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문제 의식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사용한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와 동의 혹은 합의가 필요하다. 어떤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구했으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어떻게 결론을 유도했는지, 혹은, 설정한 가설을 어떻게 검증했는지에 관해서 연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그 결론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어교육학계에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연구 방법을 찾거나 개발한다면 점차로 국어교육학의 연구방법론도 수립될 것이다.

그러면 국어교육학의 연구 방법 탐색을 위해서 연구의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자료의 수집 단계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서·얼마나·어떻게’이다. 이는 국어교육학 고유의 문제는 아니나, 연구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따라서 연구성과물의 양 역시 충분하지 못한 국어교육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아직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자료의 질보다 양에 집착하게 되어 연구 주제나 연구 방법과 무관하게 무조건

자료의 양이 많아야 안심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연구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당히 개인성이 짙은 언어 사용에 관련된 연구에서, 대규모 설문과 소규모 면담의 타당성 문제, 설문 혹은 면담 대상 선정의 타당성 문제 등은 ‘대규모 무선 표집’이면 무조건 신뢰할 수 있다는 식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료의 해석에 있어서는, 연구가 연구자의 논리적 도달점을 밝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혹은 의견상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연구 주제가 무엇이건, 숫자와 계산식을 통한 통계, 혹은 컴퓨터가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내놓은 결과를 ‘객관적’이라고 믿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연구자 상호간에 서로의 지적 논리적 (더러는 인간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객관성’이라는 기치 하에 연구자의 직관과 경험을 주관으로 치부해버리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또한 같은 자료라 하더라도 어떤 처치를 한 결과를 채택하는가의 문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간단한 예를 들면, 두 학급의 학력을 비교할 때 검사 결과의 평균치를 비교할 것인지 최빈치를 비교할 것인지, 교수법의 성과를 진단할 때 처치를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할 것인지 처치를 한 집단의 처치 전과 처치 후를 비교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 등 연구의 목적과 연구 문제의 특성에 비추어 정밀한 검토 후 정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특히 인간에 대한 교육을 다루며, 수업 외에도 계속 접하는 국어를 다루는 국어교육학에서 연구 대상인 인간의 성장과 학습을 구별하기 어려우며, 교육 현장에서의 학습과 교육 현장 밖에서의 학습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은, 연구 결과를 자신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 중의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연구 방법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

넓은 의미의 국어교육학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이른바 한국어 교육 부분이다. 특히 이를 위한 연구 방법면에서, 국어교육학의 연구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외국어교육의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지 혹은 고유한 방법을 개발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숙고해야 할 것이다.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그리고 외국어교육은 사안에 따라 공통점을 공유하는 부분이 다른 만큼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동을 최소화한 연후에 적용을 시도하기 시작해야 한다.

3. 결론에 대신하여: 국어교육학 연구방법론의 탐색과 개발

국어교육학의 연구방법론은 결국 국어교육학의 수월성과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도구이다. 국어교육학의 수월성이란 “연구해야 할 문제들을 적절하고 효율적인 과정에 따라 연구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였는가”에 얼마나 접근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경쟁력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국어교육학뿐만 아니라 어느 학문 분야에서나 수월성과 경쟁력의 원천은 문제 의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의식을 연구 문제로 만들어 해결하고자 할 때, 그 해결의 방안은 적절한 연구 방법의 채택이다. 그리고 연구 인력은 이러한 연구 방법을, 연구의 주제와 내용, 그리고 연구의 환경에 따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사용의 과정과 결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제안되어 있는 방법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할 때에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거나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다.

국어교육학 연구방법론의 최대 과제는, 우리 나름의 국어교육학 연구 방법론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유사·인접 분야의 연구 방법을 선택하고 조합하여 적용하는 수준에서부터, 새로운 연구 방법을 발견하고 어찌면 새로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여러 차원에서 이야기될 수 있겠다. 이미 우리는 어느 수준에선가 시작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 셈인데, 우리가 앞으로 언제 어느 수준에 도달할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지금이 이러한 시도를 시작하는 데에 가장 ‘덜 늦은’ 때라는 점은 분명하다.

참고 문헌

- Bell, J.(1987) *Doing your research project*, Milton Keynes,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Bernard, M. et al.(1991), *Methodoref: Guide methodologique de la recherches en education et formation*.
- Brown, G., and G. Yule.(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J. D.(1988) *Understanding research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 teachers guide to statistics and research desig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umfit, C. and R. Mitchell(eds.)(1990), *Research in the Language classroom*, London: Modern English Publications.
- Cohen, L., and L. Manion.(1989),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3rd ed.)*, London: Routledge.
- Creswell, J. W.(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AGE
- Girden, E. R.(1996), *Evaluating research articles*, SAGE.
- Nunan, D.(1992), *Research methods in language learning*, Cambridge Univ. Press.
- Seliger, H., and M. H. Long(eds.)(1983), *Classroom oriented research*, Rowley, Mass.: Newbury House.

<초록>

국어교육학 발전을 위한 연구방법론 탐색을 위하여
-국어교육학 연구 방법의 현황과 문제

윤 희 원

본고는 국어교육학에서 연구방법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목적으로 한다. 국어교육학은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보편성과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주된 관심사로 한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또 국어(언어), 교육, 제도를 다루는 여러 학문 영역과 연구 내용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있지만 ‘국어교육’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인간-국어-교육-제도’로 이어지는 국어교육학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의 탐색과 개발이 요청된다.

국어 교육학 연구의 역사는 국어교육 연구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최근 30년 간 국어교육 연구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을 알 수 있다. 70년대에는 국어교육학의 정체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주로 계량이나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사 연구 또는 양적 연구가 이루어졌고, 80년대에는 국어 교육학의 이론을 정립할 목적으로 문헌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90년대 초기에는 교육 현장의 의미를 인식하면서 각종 실험 연구가 이루어졌고 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질적 연구 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연구 방법은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종속하는 것인 만큼, 연구 주제에 따른 방법의 적절성은 획일화될 수 없는 것이며 이해와 합의를 통해서만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어교육학의 수월성과 경쟁력은 곧 문제 의식의 수준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연구 방법, 연구 인력, 연구 환경에 달려 있다. 국어 교육학은 이제 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나름의 연구방법론을 탐색하고 개발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

【핵심어】 국어교육학, 연구방법론,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조사 연구, 문헌 연구, 실험 연구, 문제 의식

<Abstract>

**Towards exploring research methodologies for
developing the science of Korean education
: An overview of some issues**

Yoon, Hi-won

This essay purposes to share awareness of problems involved with the research methodologies in the science of Korean education. It has both universality and specialty. The former is related to the fact that its object is a human being and the latter means that its main concern is the (national) language use ability.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uch elements as human being, national language, education, and system before we explore and develop the research methodologies.

The history of research has gone along with the researcher's awareness of the problems. In retrospection of the last three decades, we can see such trends. In the 1970's, surveys or quantitative researches were conducted on the basis of measuring and making questionnaires with the recognition of the identity of the science of Korean education. In the 1980's, researches based on literature review were the main streams, which reflected their eager for theories. The first half of the 1990's could be characterized as the period that schools became understood as fields of research and practice. And we experienced the advance of qualitative researches during the second half.

The research methods should not be uniformed but be approved by the researchers involved, because the selection of them is subordinate to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The superior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science of Korean education is absolutely depends on the level of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method to resolve it, researchers, and environments. Now it is most important time for researchers of the science of Korean education to explore and develop their own methodologies for its academic level up.

【Key words】 science of Korean education, research methodology,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survey, literature review, experimental method, awareness of problem